

스마트 폰으로 '나눔의 집' 소식 들어요

동국대 주해종 교수 콘텐츠 비전 제작 참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과 할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화제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된 나눔의 집 앱(App)인 '나눔미'는 10월 29일부터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눔미'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소개하고 국제평화인권센터, 세계 최초 성노예 테마 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소개 등을 담았다. 11월에는 영어 버전도 지원되며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나눔미' 어플리케이션 제작에는 동국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소속인 주해종 교수가 연구개발 책임을 맡고 동국대와 산학협약을 맺은 '콘텐츠 비전'이 제작에 참여했다.

주 교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옆에는 세계최초의 성노예테마 박물관이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리려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올해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앱을 개발해 역사를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7월 중순부터 제작을 시작한 주 교수는



나눔의 집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나눔미' (좌)와 주해종 교수(동국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소속)



자원봉사하다 개발 결심

협력업체 '콘텐츠 비전' 2천만원 지원

'콘텐츠 비전'으로부터 "기획의도가 좋아 제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들은 뒤 함께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앱을 개발하는데 든 비용 2000여 만원도 콘텐츠 비전에서 모두 부담했다.

11월경 아이폰용 앱 나올 예정

영어버전도 준비 중

나눔의 집 어플리케이션에는 △나눔의 집 △역사관 △인권센터 △후원하기 △자원봉사 △커뮤니티로 구성됐다. 나눔의 집에 대한 소개와 할머니 소식 그리고 국제평화인권센터와 세계 최초 성노예 테마 박물관

관 등의 소개가 담겼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도 실렸으며 후원하기를 통해 성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2010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서울 영화사에서 신생활을 시작한 주 교수는 나눔의 집 봉사자로 활동하며 할머니들을 처음 만났다.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올해부터는 나눔의 집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주해종 교수는 "스무살 대학생 딸이 있는데 함께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다녔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가 남일 같지 않았다"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나눔의 집 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교수는 "할머니들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하는 알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과정 중에 있다"며 "나눔의 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진정성 있는 나눔활동 및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아름다운 보시행을 펼쳐준 동국대와 주해종 교수, 콘텐츠 비전에 감사하다"며 "나눔의 집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내 기자 oasis1983@hyunbul.com

월서 스님, 캄보디아 오지에 자비행

제5차 캄보디아 오지학교 지원...지뢰마을도 방문

전호희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10월 25일 캄보디아 오도르민제이 주 훈센 오도르민제이 고등학교에 들려 캄보디아 정부교과서 9종 3000권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교과서 전달식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승왕청 승왕 텡봉스님과 캄보디아 벽오지 마을에 국경교과서 지원계약 체결 후 다섯 번째다. 현지 전달식으로는 두 번째로 총 15,000여권의 교과서와 학용품 등을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있는 학교에 전달했다.

훈센 오도르민제이 고등학교는 태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학교로서 2006년에 설립, 898명의 학생과 38분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 전달식에는 오도르민제이 주 시장과 캄보디아 스님 두 분이 참석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텡마니타(3년, 여) 양은 "월서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과서와 학用品을 보시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반드시 보답 하겠다"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월서 스님은 귀국길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뿌린 캄보디아 시엠립 인근 지뢰 피해자들이 후유증으로 신음하는 지뢰마을에 들려 주민들에게 쌀 1톤을 보시하기도 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4만 2천여 명이 지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 지뢰 등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급감했지만 전체 마을의 46%를 차지하는 670km의 광범위한 지역에 여전히 불발지뢰 등 폭발물이 제거되지 않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월서 스님(오른쪽)이 캄보디아 훈센 오도르민제이 고등학교에서 학用品과 교과서 등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엔 월서 스님이 방문한 것은 스님이 가진 정전에 대한 오랜 마음속의 빛 때문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 1953년 겨울, 전투경찰에 입대했다. 전쟁은 휴전 협정서에 서명을 하여 막아지었지만, 여전히 지리산 일대는 전투가 지속됐다. 유격대로 발탁된 스님은 지리산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스님은 전쟁의 참상을 겪고 번뇌와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등 인생의 사고(四苦)를 크게 체험했으며 당시 지리산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만나 출가한다.

월서 스님은 현지 시찰 중 베트남전쟁 때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미군이 살포한 지뢰로 많은 군인과 농민들이 살상되거나 손발이 잘린 채 모여 살고 있는 지뢰마을에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지원을 결심했다.

스님은 지속적으로 매년 1톤 정도씩의 쌀을 보낼 계획이며 구급박에 할 수 없는 마을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건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덕환 기자

"교구본사, 불교사회복지 교두보 역할해야"

조기룡 교수, 10월 30일 미래복지포럼에서 발제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방분권화 되고 있는 때, 조계종 25교구본사가 지방분권적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는 10월 30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에서 "조계종 교구본사는 단위사찰로서는 개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중간자로서는 해당 교구지역 불교사회복지의 교두보이자 개별 사회복지시설 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중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조계종단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조계종단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미구축"을 첫 번째 문제로 들었다. 그는 "현재

의 전달체계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교구본사, 종단 소속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이의 상호작용 없이 종단 소속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클라이언트(시설 이용자)에게로 전달되는 구조"라며 "이는 중앙에서 단위시설에 지원할 사회복지 재원의 부족과 단위사찰 중심의 사회복지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별시설 중심의 사회복지활동'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각 사찰 내지 재가불자가 개별 설립자인 사회복지시설은 종단 차원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종단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행정전달이 제대로 전달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조기룡 교수는 교구본사 사회복지 전달 체계 현황도 조망했다.

그는 "불교사회복지는 2005년 536개 시설에서 2009년 958개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전달체계는 큰 변화가 없었

다"며 "그 원인은 교구 사회복지의 허브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조 교수는 △교구본사의 교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관리권한 미약 △종단-교구본사-말사 간 사회복지 연계사업 미흡을 교구본사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교수는 "교구본사 직영 사회복지법인의 중간 전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형성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교구복지협의체를 결성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교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만행(萬行)'을 소개하며 종단 종적(縱的) 연계사업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행서 후원금을 모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이 프로그램에 교구 본사의 역할을 정비한다면 종단 차원의 종적 연계성을 갖춘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 교수는 "특히 불교의 정체성



조기룡 교수

이 투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구본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교구 내 말사와 단위 시설들을 아우르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내 기자

아시아, 불교 아래서 하나되다

마주협 28일 조계사에서 '아시아 문화축제' 개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는 10월 28일 조계사에서 '아시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5개국 불교인이 함께 한 이날 축제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와치사라 스님, 수가타 스님, 태국 주 스님, 몽골 바트보양 스님, 다사카 스님, 제베네 스님, 강바라타 스님, 다르짜 스님, 네팔 우르겐 스님, 미얀마 우드라 스님과 이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방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삼귀의·오계와 스님들의 법문, 까리냐야 메타순타(자애) 독송으로 꾸며졌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많은데 조계사에서 이런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주민들이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은 "조



마주협은 10월 28일 '아시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네팔,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5개 불교 국가들이 축제에 참가했다.

계사에서 남방불교의 의식인 카나타 법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한국불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불자들은 모두 하나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 행사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타나 법회 이후 우정공원에서 탁발의식과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연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신종일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의료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 상: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 전: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ght Posture Health Care P.A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련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봉양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약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저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자연산삼 150원 1주 / 120년 2주 / 80~100년 5주 보유중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식 51160-150)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